



Greetings! I am Sister Alice Ruane. It was 1960, and I was standing on the deck of the “Golden Bear” freighter on my way to our new home in Korea – not a spot I had ever dreamed of standing on, but here I was! Bishop Harold Henry had asked our Mother Claudia Glenn to assist him in his work there. He needed educators, and I was one of the four sisters to be sent. My piano was in the hold of the ship with a box of 78 rpm folk dance and classical records. My file, holding my BA degree in music education, and a jar of peanut butter were in my suitcase. My heart was filled with anticipation and joy as we crossed the Pacific Ocean.

I was a young professed sister then, in the community just twelve years. I had moved from one assignment to another, happily teaching piano, voice, religion and folk dancing at two of our high schools in Pittsburgh. I looked forward to sharing these gifts with my yet unknown students in Korea. I was so excited!

Music was my companion from early childhood and the familiar place from which I would go to a wholly new culture, an Asian culture totally unfamiliar to me. Before I could share these much loved gifts, however, I first had to learn the language and culture of the Korean people. I knew there would be challenges. My response to the invitation to go was based on my deep faith that whatever we do for any member of the Mystical Body, we do for Jesus Christ. At the time, I was deeply concerned about the spiritual welfare of one of my own sisters whom I could only help with my prayers.

This was the time of letting go of all that was familiar to me, and of embracing the excitement and challenge of a new language, a new culture, a new country and new friends.

Our first year was spent in Mokpo. Most of the laughter that rang from our house was at ourselves as we became beginners again, learning how to speak, how to write, how to live Korean. Then the bishop asked us to move to the coastal town of Gangjin where we assumed administration of a middle school and opened a senior high school for girls. Students were helping me continue learning Korean while I was sharing with them what I had come to give.

Soon we had student pianists and vocalists and were performing concerts. I taught the history and dance of different cultures. It was wonderful.

Although often filled with happiness, I privately shed my tears of homesickness. I loved every minute of

those eleven years and I cried again when I had to say goodbye to Korea.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스 루엔 Alice Ruane 수녀입니다. 1960 년 저는 “Golden bear(황금 곰)”이라는 이름의 화물선 갑판 위에 서서 한국에 있는 새 집을 향해 막 여행을 시작하려고 했지요. 물론 제게 이런 일이 생기자곤 상상조차 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상상이 아닌 실제로 제게 그런 일이 생긴 거였죠! 해롤드 헨리 Harold Henry 주교님의 초청으로 마더 클라우디아 글렌 Mother Claudia Glenn 수녀님은 한국 선교를 위해 수녀들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주교님은 학생들을 가르칠 수녀들을 필요로 하셨고 네 명의 수녀들이 한국으로 파견을 가게 된 거고, 그

중 저도 한 사람이었지요. 제 피아노와 포크댄스와 고전음악 에스피레코드 (78 rpm)판을 박스에 담아 배에 선적했어요. 제 여행 가방에는 음악교육 석사 학위증과 땅콩버터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태평양을 지날 때 제 마음은 기대와 기쁨으로 가득 찼답니다.

그 때 전 수도생활 12 번째에 갓 접어든 젊은 유기서원자였고 한국으로 파견을 받기 전에 피츠버그 지역 내 우리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 두 곳에서 피아노, 성악, 종교, 그리고 포크 댄스를 가르쳤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가진 재능을 학생들과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하며 가슴 설레었답니다.

어려서부터 음악을 동무 삼아 지내 온 저는 낯익은 곳을 떠나 아주 생소한 아시아 문화에로의 여행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제가 가진 음악적 선물을 학생들에게 나누기 전에 한국어와 문화를 배워야 했어요. 물론 이에 대한 어려움이 따르리라고는 예상했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 선교에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바로 신비체(교회 the Mystical Body)에 속한 사람들을 위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 저의 깊은 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미국을 떠날 때 큰 언니가 제일 마음에 걸렸었고, 그 당시 저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도움을 줄 수 밖에 없었어요.

그 때는 저에게 있어 내게 익숙한 모든 것을 내려 놓아야 할 시간이자, 동시에 새로운 언어, 문화, 나라, 친구들을 접하는 데서 오는 여러 설렘과 어려움을 받아 들여야 하는 시간이었어요. 첫 해를 목포에서 보냈는데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갓 걸음마를 시작한 데서 오는 시행착오로 거의 날마다 웃음이 떠날 날이 없었지요. 그렇게 목포에서 지내는 동안 주교님께서 강진에서 여학생들을 위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일해줄 것을 부탁하셨어요. 학생들을 위해 제가 음악을 가르칠 때 학생들은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학생들이 피아노와 성악을 배우고 음악회도 열게 됐어요. 물론

이 외에도 타문화의 역사와 춤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었답니다.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고향이 그리워서 눈물을 흘린 적도 많았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야 했을 때 또

다시 눈물을 흘려야 했지만, 11 년 동안 지낸 한국에서의 시간을 저는 아주 소중한 간직하고 있습니다.

